



2024 전반기 특별새벽기도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창세기 강해

2024.3.18(월)~29(금)

오전 5시 10분 / 대예배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2024 전반기 특별새벽기도회 가이드북

2024 전반기 특별새벽기도회 출석표

현장/실시간으로 특새에 참여하신 날 O표 해주세요.

3.18 (월요일)	3.19 (화요일)	3.20 (수요일)	3.21 (목요일)	3.22 (금요일)	3.22 (금요일기도회)
3.25 (월요일)	3.26 (화요일)	3.27 (수요일)	3.28 (목요일)	3.29 (금요일)	3.29 (금요일기도회)

2024 전반기 특별새벽기도회 기도제목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2024 전반기 특별새벽기도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창세기 12-24장 강해)

■ 신년특별새벽기도회

- 1.2.(화) 새로운 출발: 너는 복이 될지라(12:1~9)
- 1.3.(수) 넘어질 때: 전화위복의 하나님(12:10~20)
- 1.4.(목) 선택해야 할 때: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13:1~18)
- 1.5.(금) 승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14:1~24)
- 1.5.(금요기도회) 침체에 빠질 때: 내가 이루리라(15:1~21)

■ 2024 전반기 특별새벽기도회(16~24장)

- 3.18 (월) 뼈아픈 실패, 수습해 주시는 하나님(16:1~16)
- 3.19 (화) 오랜 침체, 갑자기 찾아오시는 하나님(17:1~27)
- 3.20 (수) 회복의 열매(1): 낯선 손님을 대접하라(18:1~15)
- 3.21 (목) 회복의 열매(2): 멸망할 도성을 위해 기도하라(18:16~33)
- 3.22 (금) 실패한 가장 롯이 주는 교훈(19:1~38)
- 3.22 (금요기도회) 같은 잘못, 또 붙잡아주시는 하나님(20:1~18)
- 3.25 (월) 성취의 때,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21:1~7)
- 3.26 (화) 결단할 때,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21:8~34)
- 3.27 (수) 시험 앞에서, 의롭다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22:1~19)
- 3.28 (목) 사라의 죽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23:1~20)
- 3.29 (금) 다음 세대, 경건한 가정을 세우라(24:1~67)
- 3.29 (금요기도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로마서 4:17~25)

3.18 월요일

빠아픈 실패: 수습해 주시는 하나님(창세기 16:1~16)

서론 : 누구나 빠저린 잘못을 범할 수 있다

1.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후 아브람이 놀라운 신앙의 모습 보여주었음.
 - 1) 믿음으로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고 거친 땅을 선택
 - 2) 롯을 구하기 위해 318명을 거느리고 4개 부족을 공격하고 승리 & 소돔 왕의 제인 거절.
 - 3) 위대한 신앙의 승리 후 영적 침체가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
 - 4)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홀로 지나간 타는 횃불”을 통해 그는 확신을 소유하게 되었음.
2. 오늘 본문은 아브람이 범했던 빠아픈 잘못을 기록한다. 그는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았다.
 - 1) 이것은 치명적인 잘못: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에 비견될 만한 것.
이를 통해 아브람과 그의 가족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오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 2)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살핀다.
 - A. 아브람이 어떻게 하다 빠아픈 잘못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 B. 빠아픈 잘못을 범한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I. 신실하지 못한 아브람 (16:1~6): “자녀를 얻기 위해 하갈을 취함”

1. 아브람은 어떻게 잘못에 빠지게 되었는가? (16:1~3)
 - 1) 빠아픈 잘못은 오랜 기다림에 지쳐 있을 때 일어나기 쉽다.
오랜 기다림에 지친 상황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십년 후” (16:3).
 - 2) 빠아픈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일어난다.
 - A. 지친 사래의 제안 (2): 가장 큰 유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주어짐(ex. 하와).
 - B. 충고인가? 유혹인가?
 - 하나님을 향한 원망 vs. 신뢰와 감사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 하나님을 위하여 vs. 나를 위하여?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상식적 해석 vs. 왜곡? ("당신 몸에서 날 자" not "내 몸에서 날 자")
 - C. 아브람은 사래의 말을 들음 (창 3:6. "여자가 주매 그도 먹은지라")
2. 하갈을 취한 결과 (16:4-6): 기대와는 달리, 삶은 엉망이 되어 버림
 - 1) 하갈이 잉태함을 깨닫고 여주인을 멸시 (4) (not 존경, 순종)
 - 2) 사래의 원망 (5): "당신이 받아야. 하나님께서 판단" (not 인내, 기꺼이 감당)
 - 3) 아브람이 사래의 손 들어줌. 사래가 하갈 학대 (not 보호, 사랑)
 - 4) 하갈이 사래의 앞에서 도망 (6)
 - 5) 다시 두 사람만 남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
자신들의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음은 분명해졌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잘못 때문에 좌절된 것 같아 보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II. 신실하신 하나님 (16:7~16)

그들 힘으로는 수습할 수가 없었다. “홀로 지나간 타는 횃불”이신 하나님께서 수습하신다.

1. 엉망이 된 아브람의 삶을 수습해 주심 (7~15)
 - 1) 여호와와 사자가 도망간 하갈을 찾아가 만나주심 (7-8)
 - 2) 하갈에게 말씀 (9):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 3) 하갈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심 (10~12)
 - A.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
 - B.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
 - 4) 하갈의 고백(13~14)
 - A.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 B. ‘브엘라해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 계신 이의 우물
 - 5) 하갈 다시 돌아와 사라에게 복종 & 아브람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음(15) 아브람의 가정의 혼란이 수습되어짐.
2. 아브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 (16:16~17:1)
 - 1) 13년 동안 평범하고 소시민적인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되었다.
 - 2) But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아브람을 연단하고 숙성시키셨다.
아브람의 자아는 철저히 깨뜨려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졌다.

결론

1. 어떤 상황에서도 뼈아픈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2. 과거에 범한 잘못 때문에 삶이 엉망이 되어 버린 사람. 미래를 포기한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수습해주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주시다.

3.19 화요일

오랜 침체, 갑자기 찾아오시는 하나님(창세기 17:1~27)

서론

아브람은 하갈을 첩으로 취한 후 큰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갈등은 봉합되었다. 이후 13년 동안 그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간다. 현실에 안주하여 땅의 사람으로 소박하게 살아간다.

I. 하나님의 갑작스런 방문(17:1~16)

1.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찾아오시고 말씀(1)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2~8)
 - 1) 첫 번째 말씀(2):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15장의 약속과 언약 확인(15:4~5, 18), 아브람은 엎드려 경배.
 - 2) 두 번째 말씀(3~7)
 - A.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4).
 - B. 이름을 바꿈(5): 아브람(존귀한 아버지) ⇒ 아브라함(여러 민족의 아버지)
 - C.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6): 민족들이,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 D. 영원한 언약(7): 내 언약을 네 후손과도 세워서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 E.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8).
3. 하나님의 명령(9~14): 언약의 표시, 할례를 받으라.
 - 1) 너와 네 후손이 대대로 지키라(9)
 - 2) 언약의 표시, 할례(10~11):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시.
 - 3) 대대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함(12~13): ‘너희 몸에 새겨진 영원한 언약’ 집에서 난 자,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 모두 난 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 4)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14).
☞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시를 요구하시며, 그가 하나님 언약의 변함없는 대상임을 확인시켜 주셨다.
4. 하나님이 사래에게 주신 말씀(15~16): 하나님의 약속은 사래에게 확대되어짐
 - 1) 이름을 바꿈(15): 사래(나의 공주) ⇒ 사라(왕비, 여러 민족의 어머니)
 - 2) 그에게 복을 주어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16)
☞ 사랑받는 공주가 되려는 노력에서 벗어나,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일에 자신을 드러야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II. 하나님의 설득(17:17~27): 순종,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복귀

1. 아브라함의 반응(17~18): 믿지 못함
“백 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 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2. 하나님의 확증(19~21)
 - 1) 아니라 네 아내 사라도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19a)
 - 2)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19b):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 3) ‘이스마엘’도 번성하게 할 것이나, 내 언약은 사라도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21)
3.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순종(23~27)

결론

1. 하나님은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2. 갑작스럽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놀랍게 회복된다.
하나님은 언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3.20 수요일

회복의 열매(1): 낯선 손님을 대접하라(창세기 18:1~15)

서론

하나님과 단절되어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던 아브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다시 세우셨다. 이제 하나님은 낯선 나그네의 모습으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

I. 하나님의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아브라함(18:1~8)

1.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심(1~2a):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13:18)
 - 1) 아브라함은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 문에 앉아 있었고,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
 - 2) 하나님은 일상생활 가운데 찾아오시고 시험하신다.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그의 사람들에게 알려시키기 위해 찾아 오신다.
대부분의 경우,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마 25:40).
2. 아브라함의 환대(2b~8)
 - 1) 영접(2b): 곧 장막 문에서 달려 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엎드려 절을 했다).
 - 2) 겸손하게 요청(3~5): '내 주여'
 - A.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십시오."(3)
 - B. 발 씻을 물(4):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을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 C. 먹을 떡(5a):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십시오."
 - D. 그들의 반응(5b): "네 말대로 그리하라."
 - 3) 정성을 다해 극진하게 대접하고 섬김(6~8): "급히 장막으로 가서" / 부지중에 천사 대접(히 13:2)
 - A. 떡을 만들라(6): 사라에게 부탁. 속히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게 함
 - B.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요리 준비하게 함(7)
 - C. 영긴 젖(치즈)과 우유와 송아지 요리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림(8a)
 - D. 그들이 먹는 동안 종과 같이 나무 아래에 서서 시종드는 아브라함(8b)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II. 사라의 불신과 하나님의 설득(18:9~15)

1. 사라에게 주신 말씀(9~10): 이번 방문의 초점은 사라.
하나님의 이전 방문을 통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에 대한 말씀을 믿지 못했다(17:19). 이제 하나님은 사라의 불신앙을 고치신다.
 - 1) 아브라함에게 주신 질문과 그의 답변(9):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 2)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10; 17:16,19,21)
 - A.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 B. 장막 뒤에 있는 사라가 들도록 말씀하심: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다.”
2. 사라의 반응(11~12)
 - 1) 사라의 상황(11):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 2) 사라의 반응(12): 속으로 웃음(17:17),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함.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벤전 3:6)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을 것인가?”
3. 하나님의 설득(13~15):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
 - 1) 사라의 불신앙을 노출시키심(13): ‘사라가 왜 웃는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
 - 2) 하나님의 설득(14)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17:21; 18:10)
 - 3) 웃음 논쟁(15): 사라, 두려워서 부인 “내가 웃지 아니하였다.” / 하나님, “아니라 네가 웃었다.”

결론

1.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낯선 손님으로 찾아오신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아브라함처럼 환영하고, 겸손하게 극진히 대접하고, 정성을 다해 섬겨야 한다. 그러면 우리도 부지중에 주님을 대접할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
2.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사라의 불신앙을 고쳐주시기 위해 찾아오셨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의 불신앙을 노출시키며 책망하신다.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마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3.21 목요일

회복의 열매(2): 멸망할 도성을 위해 기도하라(창세기 18:16~33)

서론

영적으로 회복된 아브라함은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했고,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 손님들은 떠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알려준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씨름한다.

I.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18:16~21):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전송할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

1.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17)
 - 1) 하나님은 믿음을 회복하고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했던 아브라함을 친구로, 선지자로 대해주신다.
 - 2)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원칙(암3:7):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 3)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요15:15)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는데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 4)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그가 행하실 일을 듣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2.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 1)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18~19)
 - A.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
 - B. How?: 그로 그 자식과 가족들을 명하여 여호와와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함으로
 - 2) 소돔에 가는 목적(20~21)
 - A. 상황(20):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 B. 확인(21):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보고 알려함.
 - 3) 교훈: 하나님은 한 도시와 국가의 죄악을 보시고, 확인하시고, 심판하신다. 지금 우리는 어떨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II. 소돔을 위한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18:22~33)

1.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하나님께 호소(23~26)
 - 1)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는 아브라함(23)
소돔의 심판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성을 위해 기도하게 하려 함이다.
 - 2)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말함(24,25)
 - A.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려고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악한 소돔 성을 위하여 기도한다.
 - B. 그가 문제로 삼는 것은 롯과 그 가족들의 평안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이다.
그는 도시의 운명이 악인들이 아니라 의인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 3) 하나님의 반응(26): 그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셨다.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오십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2. 아브라함의 끈질긴 중보기도(27~33)
여섯 차례에 걸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의인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처음 세 번은 50, 45, 40명이고(28~29), 다음 세 번은 30, 20, 10명 순이다(30~32).
그는 소돔 성을 위해 끈질기게 기도하였다.

III. 아브라함의 끈질긴 중보기도의 결과(19:23~28, 29, 겔22:30~31)

1.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19:23~28): 두 도시가 멸망을 당한 이유
의인 10명이 없었기에 두 도시는 멸망을 당하였다.
2. 아브라함의 기도는 조카 롯과 그 가정을 구원하였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엮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엮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19:29; 참조. 19:16,21,22)

결론 이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1.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깨닫고 준비하는 것이다.
2. 자신이 의인의 삶을 살고, 나아가 의인 열 명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3. 기도의 사명을 다하여, 가정과 민족과 교회를 살리는 자 되어야 한다(겔 22:30,31).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하나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3.22 금요일

실패한 가장: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창세기 19:1~38)

서론

두 천사는 소돔에 도착했고, 롯의 집에 들어가게 된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 당하나, 롯과 두 딸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대신 세상을 선택했던 한 家長의 슬픈 결말을 살피본다.

I. 롯과 그 가족들이 소돔에 살게 된 과정(12:4,13:8~13; 14:12,16)

1. 아브람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주(12:4)
2. 소유가 늘어남에 따라 아브람과 헤어지게 됨. 소돔을 선택(13:8~13)
3. 네 개 부족의 연합군에 의해 포로를 끌려갔다가 아브람의 도움으로 풀려남(14:12,16)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소돔에 거주

II. 악한 소돔 성에서 고통당하는 의인 롯(19:1~11)

1. 의인 롯의 귀한 모습(1~3, 벧후 2:6~8)
 - 1) 소돔에 도착한 두 천사들을 영접하고 간청하여 자기 집에서 대접(1~3): 18장의 아브라함과 유사
 - 2) 소돔 성에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베드로후서 2:6~8): 소돔에 살았지만, 의인의 삶을 실천.
2. 소돔 사람의 악한 모습(4~9)
 - 1)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4)
 - 2) 동성연애 만연(5):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 3) 만류하는 롯을 해하려 함(6~9)
 - A.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 B.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였음
3. 두 천사가 롯을 구해줌(10~11)
 - 1)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음
 - 2) 문 밖의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였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III. 소돔을 선택했던 롯이 家長으로써 겪은 비극(19:12~38)

1. 하나님의 자비, 사위들의 외면(12~14)
 - 1) 두 사람이 롯에게 명령(12~13):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가 멸하리라.”
 - 2) 사위들의 반응(14):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2. 지체하는 롯, 자비를 더하시는 하나님(15~23)
 - 1)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15):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 2) 지체하는 롯, 두 천사의 호의(16~22):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 A. 그 사람들이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
 - B. 명령(17):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 C. 롯의 탄원(18~20): 산 대신에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은 성읍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 D. 천사들 허락(21~22):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다.”
 - 3) 롯이 해가 돋을 무렵 ‘소알’에 들어감(23)
3.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24~26)
 - 1)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셔서 모든 것을 멸하셨음(24~25) 롯이 평생을 통해 모은 재산, 그의 사위들은 다 불타버렸음
 - 2) 롯의 아내(26):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음 누가복음 17:28~32. 인자가 나타나는 날은 롯의 때와 같을 것, 롯의 처를 기억하라.
4.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하나님(27~29)
 - 1) 아브라함(27~28):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렀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에 연기가 웅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음
 - 2) 하나님(29):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옆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5. 롯의 후손 (30~38): “악한 자손의 부끄러운 조상”
 - 1) 롯이 산에 올라가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
 - 2)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번갈아 동침(30~35)
 - 3)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여 “모압” “벤암미”(암몬 자손의 조상) 낳음

결론

1. 家長 롯이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선택할 때 비극적 결말을 맞이했다.
자신은 믿음을 지켰지만, 모든 소유는 불타고, 사위와 아내를 잃었다. 딸들은 심판을 보았지만 여전히소돔의 방식으로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 롯은 악한 후손들의 부끄러운 조상이 되었다.
2. 하나님께서 아버지(家長)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하라(엡6:4)
 - 1)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
 - 2)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경건한 후손들의 자랑스러운 조상이 되어야 한다.

3.22 금요기도회

같은 잘못, 또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창세기 20:1~18)

서론

소돔이 심판을 받은 후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떠나 네게브에 있는 그랄로 간다. 노년에 낫선 땅으로 이주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낫설고 적대적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살펴본다.

I. 낫선 땅에서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20:1~2)

1.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말함(2a)
 - 1) 반복되는 잘못(12:10~13): 75세 때 이집트에서 범했던 잘못을 99세에 반복.
 - 2) 충격적인 잘못
 - A.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 시기에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을 말씀(17:19; 18:10)
 - B. 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하며 소돔을 위해 기도했다(18:16~33)
 - C. 그런 아브라함이 낫선 땅에서 쉽게 자신과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포기해 버림
 - 3) 아브라함 콤플렉스: 낫선 땅에 가면 두려움에 압도되어 아내를 누이라 속임
2.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음(2b)
 - 1) 그의 염려대로 이루어졌음: 힘 있는 세상은 우리의 귀한 것들을 빼앗아 간다.
 - 2) 사라의 미모 때문이 아니라, 정략결혼을 통해 아브라함과 동맹 관계를 구축하기 위함.
 - 3)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좌초될 위험에 직면

II. 꿈속에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20:3~7)

1.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3)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2. 그 여인을 가까이하지 않았던 아비멜렉의 반발(4~5)
 - 1)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 2) 아브라함이 '내 누이'라 하였고, 그 여인도 그를 '내 오라비'라 하였음
 - 3)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음
3. 하나님의 답변(6~7)
 - 1) 방문 이유(6):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죄짓지 않도록, 그 여인을 가까이 못 하게 하였음
 - 2) 명령(7a) A.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B.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라” /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주면 네가 살 것이다.
 - 3) 경고(7b):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 4) 평가
 - A. 하나님은 비겁하게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아브라함을 아비멜렉 앞에서 높여주셨다.
 - B.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부족하고 쉽게 넘어지는 나를 어떻게 소개하실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III. 아브라함과 사를 건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20:8~18)

1. 그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아비멜렉이 행한 일(8~10)
 - 1) 모든 종들을 불러 모든 일을 다 말하여 주었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함
 - 2) 아브라함을 불러 책망(9~10): ‘네가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느냐?’ ‘무슨 까닭으로 이런 짓을 했느냐?’
2. 아브라함의 답변(11~13)
 - 1) 이곳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음(11):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
 - 2) 거짓말이 아님(12): 그는 나의 이복 여동생인데 내 아내가 되었음
 - 3)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아내에게 부탁하고 허락받는 것(13)
 - 4) 평가
 - A. 연약한 아브라함.
 - B. 하나님을 두려워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심히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일
3.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14~18)
 - 1)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호의를 베풀어 주었음(14~15)
 - A. 양과 소와 종들을 주었음: 참조. 12:16
 - B. 그의 아내 사라도 돌려보냄
 - C. 거처를 마음껏 선택하도록 허락: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 2) 은 천 개를 아브라함에게 주어, 사라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녀의 결백을 입증시킴(16)
 - 3)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심(17~18)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심

결론

1.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다.
 - 1)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점이 있듯이,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다.
 - 2)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것은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일이다.
2.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다.
 - 1)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선지자로 귀하게 여기시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 2) 그는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 3) 거대한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 그러나 더 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3.25 월요일

성취의 때,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창세기 21:1~7)

서론

사라는 65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왔지만 25년 동안 자식이 없었다. 89세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사라는 웃기만 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진 사라를 어떻게 웃게 하셨는지 살펴보겠다.

I. 사라의 지난 여정

- 하나님의 약속과 순종(12:1~5): 사래가 65세 때
 -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1~2)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의 복이 될지라”
 - 아브람의 순종(4): 그가 하란을 떠날 때 75세
 - 사래도 동행(5):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 가나안 땅에서 사라가 겪었던 좌절과 아픔(12:10~15; 16:1~3)
 - 이집트에서 겪은 아픔(12:10~15): 사래가 65세 기근을 피해 이집트에 갔을 때, 아브람이 그의 누이라 하여 바로의 궁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풀려났음
 -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음(16:2,16): 사래가 75세
 - 10년의 기다림,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지 않음
 - 자신의 생각으로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었지만(아브람 86세), 많은 고통을 겪게 됨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었다.”(2)
- 사래가 89세 때: 신실하신 하나님 vs 신실하지 못한 아브라함
 -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
 -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17:15~19)

아내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고(15), 그가 아들을 낳아 줄 것이며(16), 그 이름을 이삭으로 정해주시고(19), 하나님의 언약을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을 약속.
 - 사라에게 주신 말씀(18:10, 13~14)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10)
“믿지 못해 웃는 사라에게 한 번 더 약속하셨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있을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13~14)
 - 신실하지 못한 아브라함(20:1~2): 또 한 번의 아픔
헤브론에서 ‘그랄’로 이주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여 아비멜렉이 그를 데려갔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역시 풀려났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II. 사자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21:1~7)

1. 사자가 90세 때 일어난 일(21:1~2)
 - 1)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1): “사자를 돌보셨고” “사자에게 행하셨다”
 - 2)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2)
“사자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2. 아브라함의 순종(3~5)
 - 1) 아브라함이 사자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음(3)
 - 2) ‘이삭’이 난 지 팔 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음(4)
 - 3)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은 백세(5):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3. 사자의 고백(6~7)
 - 1)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6)
“사자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 2)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7):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4.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 1) 요 14: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 2) 요 16: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결론

1. 우리 주위에 마음이 슬픈 사람들, 낙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병, 방탕한 자녀들, 중독에 빠진 사람, 경제적 압박, 고통받는 자녀들, 구원받지 못한 가족)
2.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3.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행하셔서 우리를 웃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대신,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

3.26 화요일

결단할 때,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창세기 21:8~34)

서론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다. 큰 문제가 찾아왔다.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살펴보겠다.

I. 약속의 아들, 육체를 따라 난 아들(21:8~13)

1. 이집트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림(8~9)
 - 1)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8)
 - 2) 사라가 보았음(9): 아브라함의 아들 이집트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것
2. 사라의 요구(10)
 - 1) 요구: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쫓으라.”
 - 2) 이유: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참조. 17:19,21.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을 약속하심
3.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11~13)
 - 1) 매우 근심하는 아브라함(11)
 - 2) 하나님이 주신 말씀(12~13)
 - A.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다”(12)
 - B.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13)
4. 우리에게 주는 교훈
 - 1)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다. 설령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 2)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이다(갈 4:28~31).

II. 약한 자들을 돕는 하나님(21:14~21)

1. 아브라함의 결단(14~16): 고통당하는 하갈과 그의 아들
 - 1) 결단(14a):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19:27), 떡과 물을 메워 주며 하갈과 그 아이를 내보냈다.
 - 2) 고통당하는 하갈과 그의 아들
 - A.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14b)
 - B. 가족부대의 물이 떨어졌을 때, 아들을 나무 아래 두고 떨어져 통곡(15~16)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2. 약한 자들을 돕는 하나님(17~21)

- 1)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다(17a)
- 2) 하갈에게 말씀(17b~18)
 - A.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17b)
 - B.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잡으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13; 16:10)
- 3) 하나님이 그의 눈을 밝히심(19):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함
- 4)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20): 그가 장성하여, 할 쏘는 자가 되고, 바란 광야에 거주, 결혼

III. 브엘세바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21:22~34)

1.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의 방문(22~23)

- 1)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22; 20:7, 17~18): 이삭의 출생, 우물
- 2) 하나님께 맹세하고, 자신들과 아브라함이 서로 후대하도록 제안(23; 20:14~16)

2.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음(24~32): “브엘세바”

- 1)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사과를 받아냄(24~26): 그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음
- 2) 양과 소를 주며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음(27)
- 3)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고 그에게 주며 자신이 이 우물을 판 증거로 삼음(28~32)

3. 브엘세바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33~34)

- 1) 나무를 심는 아브라함: 에셀나무는 건조한 땅에 지하 30m까지 뿌리를 내려 지하수를 흡수하고, 10m 이상 큰 나무로 자라며 시원한 그늘을 제공한다.
- 2) 영원하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 복잡한 문제가 마무리되고,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그는 안일에 빠지는 대신 영원하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간다.

결론

1. 아브라함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해야 한다. 과거 잘못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주시다. 우리가 결단할 일과 믿고 맡길 일을 알려 주신다.
2. 하갈처럼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에게 부르짖어야 한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해결책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위험과 우리 자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
3. 하나님은 때때로 주위 이웃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 1)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듣게 된다.
 - 2) 아브라함처럼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한다. 미래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
 - 3)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땅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

3.27 수요일

시험 앞에서: 의롭다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창세기 22:1~19)

서론

백 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다. 하갈과 그 아들을 내보낸 후 이삭은 잘 성장하였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시험하신다. 그가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하고 복을 받았는지 살펴본다.

I.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22:1~2)

1.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심(1): “내가 여기 있나이다.”
2.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
 - 1)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은 예루살렘을 둘러싼 산악 지대 이름(대하 3:1 솔로몬 성전 세워짐)
 - 2)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또한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지에 대해 시험받는다.
3. 교훈: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복을 주시려 시험하신다(Test).

II. 아브라함의 순종과 그 비결 (22:3~10)

1. 아브라함의 순종
 - 1) 재빠른 순종(3~4)
 - A.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3):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떠났음
 - B. 제 삼 일에 도착(4):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땅까지 약 80km. 삼일은 고통과 번민의 시간
 - 2) 순종의 장애물 제거(5~6)
 - A. 두 종을 나귀와 함께 모리아 산 아래서 기다리게 함(5)
 - B. 놀라운 고백: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 C. 두 사람이 동행(6): 번제를 위한 나무는 이삭이 지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었다.
 - 3) 이삭의 질문에 대해 믿음으로 답변(7,8)
 - A. 이삭의 질문(7):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 B. 아브라함의 답변(8):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 4) 순종(9~10): 제단과 나무를 준비,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로 그를 잡으려 함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2. 순종의 비결

1)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히11:17~19)

17.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다. 18.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a.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2) 그를 설득하시고 끝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을 신뢰(롬 4:20~21)

20.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III. 하나님의 반응과 축복 (22:11~19)

1. 하나님께 인정을 받음(11~12; 약 2:21~23);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2.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13~14)

1) 아브라함이 한 숫양을 발견하고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2) “여호와와 이레”: 여호와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3)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시더라도, 우리가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 경험하게 하신다.

3.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 (15~18):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도니”(히 6:13~14) :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16),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18b)

1)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17a):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2) 아브라함의 씨(자손)에 대한 약속(17b~18): 참조. 갈 3:16

A. “네 씨가 크게 번성”: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임.

B.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17b; 3:15)

C.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4. 하나님이 그의 벗인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또 다른 이유 (요3:16절) 아브라함에게 악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낸 하나님의 마음과 고통을 맛보게 하셨다.

결론

1.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그를 의지하고 순종하는지 시험하신다. 목적은 연단하고 복 주기 위해서다.
2.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재빠르게 반응하고, 순종의 장애물들을 지혜롭게 제거하며, 사람들의 질문에 믿음으로 대답하고, 진정으로 또한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3.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그를 경외하는 의로운 자로 인정하시며, 그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신다. 또한 그 후손들을 번성하고 강하게 하시며 그들을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하신다.
4. 나아가 순종은 우리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그의 친구가 되게 한다.

3.28 목요일

사라의 죽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창세기 23:1~20)

서론

사라는 127세를 살고 삶을 마친다. 아브라함은 슬픔에 잠긴 채 아내의 매장지를 위해 헛 족속과 협상한다.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그가 자신과 하나님 백성의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살펴본다.

I. 사라의 죽음(1~2)

1.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음(1):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2. 헤브론에서 죽은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하는 아브라함(2)

II. 사라를 위해 묘지를 사는 아브라함(23:5~20)

1. 헛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이 묘지를 요청함(3~6)
 - 1) 아브라함의 자기소개와 요청(4)
 - A. 자기소개: 나는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
 - B. 요청: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시오.
 - 2) 헛 족속의 호의적인 반응(5~6)
 - A. 아브라함에 대한(6a):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 B. 호의적인 태도(6b):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in the choicest of our tombs)을 택해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금할 자가 없다.
2.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소유, 막벨라 밭 굴을 묘지로 구입함(7~18)
 - 1) 아브라함이 공손하게 요청(7~9)
 - A. 자를 위해 ‘에브론’에게 부탁
 - B. 그의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충분한 대가를 받고 내게 팔아 묘지로 삼게 하소서
 - 2) ‘에브론’의 대답(11):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선물로 당신에게 드리겠다.
 - 3) 아브라함이 반응(12,13):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 받으시오”
이유는, 선물로 받는 땅은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훗날 후손들이 요구하면 돌려주어야 한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담이지만 이제 밭과 굴을 사기로 결단한다.
 - 4) 높은 가격을 주고 묘지를 구입(14~16)
 - A. 땅값은 은 400세겔(은 1세겔은 11.4g. 노동자의 4일 품삯)(15): 노동자 5년 품삯, 상당한 고가. 비교. 다윗 성전 터(삼하 24:24, 은 50세겔), 예레미야 아나돗의 밭(렘 32:9, 은 17 세겔)
 - B. 아브라함은 엄청난 고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구입(16)
당시 땅이 싸게 팔린 경우는 팔았던 자의 후손들이 거래했던 금액을 지불하면 되찾을 수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영구히 자신과 후손들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수용하였다.
 - 5)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에브론의 밭과 굴을 자신의 소유로 확정(17~18)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3.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장사하였음(19~20)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헤브론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한다(19).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헛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20).

III. 아브라함은 왜 엄청난 고가를 지불하고 가나안 땅에 묘지를 구입하였는가?

1.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믿음의 先투자를 하였다.
 - 1) 아브라함의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반드시 이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의 고백이었다.
 - 2) 유사한 경우를 예레미야의 아나돗 땅 구입에서 볼 수 있다(렘 32:6~15). 예루살렘 멸망 직전, 하나님께서 땅 구입을 명령하셨고 예레미야가 순종한 것은, 멸망당할 이스라엘 땅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예언적 행동이었다.
 - 3)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과 꿈이 있다면, 믿음의 先투자가 필요하다.
2. 사라를 위해 구입한 이 땅은 족장들의 매장지가 되고, 그 후손들에게 영적, 정신적 고향이 되었다.
아브라함(25:7~10), 이삭과 리브가, 레아와 야곱(49:29~31; 50:12~13)이 여기 묻혔다. 이곳은 그의 후손에게 장차 그 땅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독려해주었다.
3.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히11:13~16)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행동으로 평가한다. 이 땅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위대한 일을 한다 해도,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

결론

1.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착민이 아니고 나그네임을 명심해야 한다.
2.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로 인정받으며 살아가야 한다.
3.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믿음의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 1)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굳게 믿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다면, 믿음의 선투자가 필요하다(과거 내일비전 센터 건축).
 -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에 있다.
저 높은 곳을 바라볼 때만 이 땅에서 방황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3.30 금요일

다음 세대, 경건한 가정을 세우라(창세기 24:1~67)

서론

아브라함과 관련된 마지막 사건은 40세가 된 이삭을 결혼시켜 경건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경건한 가정을 위해 아브라함과 그가 신임하는 늙은 중, 리브가, 이삭은 무엇을 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I. 아브라함: 가장 신뢰하는 늙은 중에게 부탁하고 일반적인 기준 제시 (24:1~9)

1. 아브라함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삭의 아내를 부탁함(2)
2. 아브라함이 제시한 이삭의 아내를 위한 기준(3~9): 일반적인 기준
 - 1)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3~4)
이삭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장애가 되지 않고 잘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라.
 - 2) 약속의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겠다는 신앙적 결단을 가진 자(6,8)
자신처럼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는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여자 아브라함!).
3.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앞서 보내주실 것을 기도하며 확신한다(7).

II. 아브라함의 중: 하나님께 구체적인 기준 제시하며 이삭의 아내를 찾음 (24:10~17)

1. 고기를 잡으려면 먼저 물가로 가라(10~11): 성 밖 우물결, 여인들이 물 길으러 나올 때.
2. 기도(12~14)
 - 1) 삶에서 터득한 구체적인 기준(접촉점) +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김
부탁받은 것 이상의 섬김을 베푸는 사람, 부탁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낙타까지 살피는 따뜻한 마음.
 - 2) 복된 만남을 얻으려면 우리에게도 삶에서 터득한 구체적이고 단순한 한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
3. 도전(15~17): “중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4. 점검(18~27): 구체적인 기준 + 일반적인 기준에 부합되는가?
자신이 제시했던 구체적인 기준(18~20), 아브라함이 제시했던 기준을 리브가가 만족시킴(21~27)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27b)

III. 리브가(24:18~20)

1. 기대 이상의 친절을 베풀어 종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리브가의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
2. 존 맥스웰 거인들의 인생법칙. 낙타 한 마리 물 80리터를 마심. 낙타 10마리 × 80리터 = 800리터. 800리터 = 20리터 용량 물동이 × 40 회, 40회 × 3분 = 2시간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II. 아브라함의 종: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승낙을 받음(24:28~53)

1. 리브가의 오빠 라반의 영접(28~32)
2. 아브라함의 종의 진술(33~49):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술
 - 1) 자신의 소개(34~36): 아브라함의 종, 노년에 얻은 아들의 아내를 위해 보냄을 받음.
 - 2) 주인이 제시한 아들의 아내 조건(37~41): 내 족속에게 가라. 본토와 친척을 떠나 따라오는 자.
 - 3) 하나님께 드렸던 자신의 기도(42~44)
 - 4) 리브가가 자신의 기도(45~46), 아브라함이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켜 감사기도를 드림(47~48)
 - 5)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49)
3.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 가족들로부터 승낙을 얻음(50~53)
 - 1) 가족들의 승낙(50~51):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나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리브가)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 2) 아브라함의 종의 반응(52~53): 여호와께 절하고 준비한 선물을 리브가, 가족들에게 주었음

III. 리브가의 결단 (24:54~60):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을 떠나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감

1. 아브라함의 종의 요청 (54~56): 다음 날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2. 리브가의 결단 (57~58):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가겠나이다.”
3. 가족들의 환송과 축복 (59~60)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 문을 얻게 할지라.”
4.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복을 주신다.

IV.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24:61-67): 신비감과 기도

1. 만남의 복을 위한 이삭의 준비(61~63): 들에 나가 목상
2. 리브가(64~66): 자신의 얼굴을 가리며 이삭으로 하여금 신비한 기대감 갖게 함. 자기 관리
3. 경건한 가정이 세워짐(67): 이삭이 위로를 얻었다.

결론 경건한 가정 세우기

1. 아브라함은 두 가지 일을 하였다
 - 1) 그의 충성된 종에게 부탁했다. 우리도 지혜로운 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 2)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의 결단을 가진 자.
2. 충성된 종은 삶에서 체득한 기준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다.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도전하고, 자신과 아브라함이 제시한 기준을 만족시키는지 점검하였다.
3. 리브가 같이 기대 이상의 친절을 베풀어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리브가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
4. 복된 만남을 위해서는 서로의 준비가 필요하다.
 - 1) 이삭과 같은 기도와 묵상이 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와 순종에의 각오
 - 2) 리브가 같은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상대방이 신비한 기대감을 잃지 않게 해야 한다.

3.30 금요기도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로마서 4:17~25)

서론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았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울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I.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삶을 위대하게 만드셨다(4:17a)

1. 아브라함은 경건치 않고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였을 때 그에게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다.
2. 하나님의 약속(17a; 창 17:4~8): “기록된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다”
3.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세상의 상속자, 믿음의 조상,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

II.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잡으시고 설득하셔서 끝까지 믿도록 도우셨다(4:17b-22)

1. 아브라함의 하나님(17b)
“그가 믿은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2.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18~20): 원래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노년에 놀라운 믿음을 소유
1)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18): Against all hope, he in hope believed! 그 결과 그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2) 구체적인 상황 예시(19~20): 불가능의 상황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하여졌다.
A. 상황: he faced that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
B. 아브라함의 믿음
Without weakening in his faith, Yet he did not waver through unbelief regarding the promise of God,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but was strengthened in his faith and gave glory to God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3.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셨기 때문이다(21)
 - 1)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음”
(being fully persuaded that God had power to do what he had promised”)
아브라함은 불가능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설득시키셔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신뢰하게 만드셨다.
 - 2) 하나님 설득의 사례들
13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심(17:1~8, 17:19) 아브라함 가정에 찾아오셔서 사를 설득하심(18:9~15) 아브라함이 그갈 땅에 이주했을 때 한 번 더 사를 누이라 속임. 하나님 구원 (20장)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21:1~7)
 - 3) 아브라함을 설득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설득하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III. 오늘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을 자는 누구인가? (4:23~25)

1. Who?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 (24b).
2. 믿음의 내용 (25)
 - 1)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께서 내어줌이 되셨다.”
 - 2)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3.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도우시고 설득하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어떤 불가능의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굳게 붙잡아야 한다.

결론

1.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복된 조상,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
2.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을 설득하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설득하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라.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이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라.

MEMO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동로 212
TEL.(053) 587-2121 FAX.(053)587-2124
<http://naeil.kr>